

CR 2007 - 6

CEO
Report

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

2007. 11

보 험 개 발 원

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
집중분석하여,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
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.

< 목 차 >

I. 검토배경	1
II. 주요 시장변화	2
1. 시장경쟁	2
2. 상품운용	6
3. 위험양태	8
III. 전략적 시사점	13

I. 검토배경

-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2000년대 이후 가격자유화, 진입장벽완화 · 판매채널 다변화, 효율체계정비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
 - '01년 가격자유화(순보험료 포함), 온라인 전업사 영업개시
 - '04년 대인배상 I 보상한도인상, 대물배상 가입강제화('05년 시행)
 - '06년 할인할증제 개선, 차명형식별 보험료 차등화('07년 시행)
- 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도 자동차보험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여 왔으나,
 - 가격경쟁 격화, 자동차대수 증가추이 정체 및 사고발생을 증가 등으로 시장규모의 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영업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시현
 - 영업적자 '01년 237억원 → '03년 6,571억원 → '06년 10,065억원
-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상황은 다소 개선여지를 보이고 있으나,
 - 신규회사의 추가진입 및 회사간 인수 · 합병 움직임, 판매채널간 경쟁심화, 상품 · 제도 등에 대한 소비자와 언론의 관심 증대 등으로 추가적인 환경변화도 예상
-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의 자동차보험시장의 주요 변화추이를 살펴보고, 향후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II. 주요 시장변화

1. 시장경쟁

가. 경쟁체제의 가속화와 성장률의 둔화

- 가격자유화 및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본격적인 경쟁체제 돌입
- 가격자유화의 진행은 기존 보험사간 가격, 상품¹⁾ 및 서비스등 전반적인 경쟁을 촉발

일정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추진내용

시기	'94.4	'95.8	'96.8	'98.8	'00.4	'01.8
내용	할인할증 범위요율	가입경력요율 범위요율	기본보험료 범위요율	기본보험료 범위폭확대	범위요율폐지 부가보험료자유화	순보험료 자유화

- 진입장벽 완화는 가격자유화와 맞물려 신규 보험사 진입을 가속화
 - '97년 ENT 폐지 → '00년 설립자본금 완화 및 세분화 → '03년 통신판매전문사 설립자본금 완화

신규보험사 진입현황

시기	'01.10	'03.12	'04.1	'06.4
회사	교보	교원나라	다음다이렉트	현대하이카다이렉트

- 자동차보험의 경쟁체제 가속화로 '01년 이후 성장률은 둔화되고 손해보험시장내 점유율이 지속 하락

자동차보험 점유율 및 성장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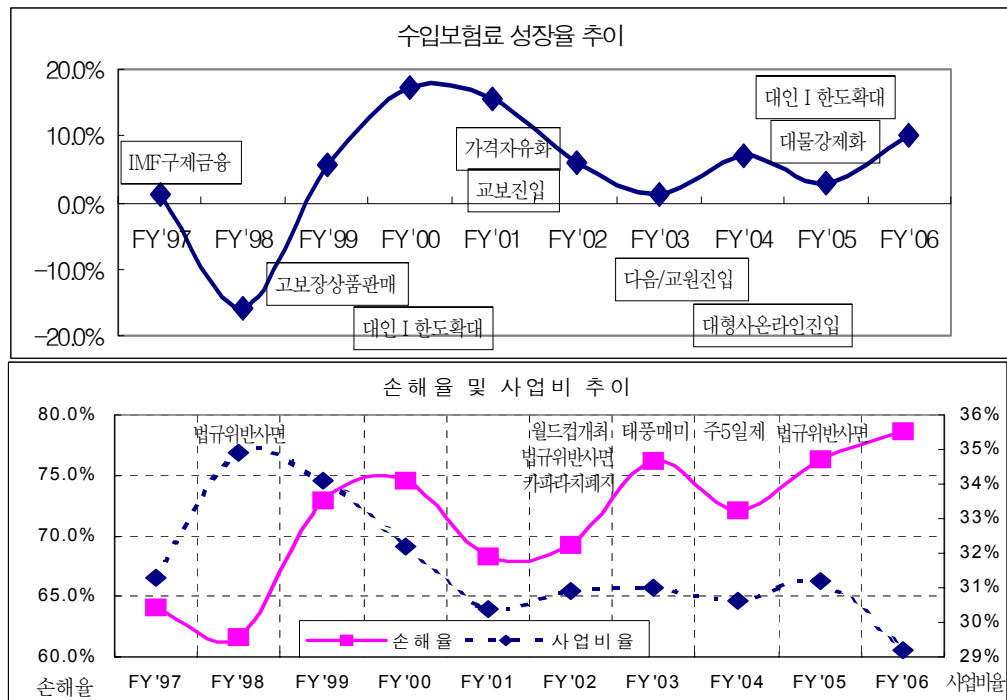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구분	FY'97	FY'98	FY'99	FY'00	FY'01	FY'02	FY'03	FY'04	FY'05	FY'06
점유율	37.0	35.1	36.3	37.4	39.1	37.3	36.3	35.7	33.2	31.7
성장율	1.2	△16.1	5.5	17.1	15.4	5.9	1.2	6.8	2.9	9.9

1)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요율조정·상품개발 건수 증가
- FY'01 22건 → FY'03 92건 → FY'05 511건 → FY'07 1/4분기 302건

- 자동차보험시장은 대략 3~4년 주기의 성장과 정체를 반복하였으며,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자동차보험 성장이 정체

자동차보험 시장변화 추이



나. 판매채널의 변화

- 온라인채널의 급격한 성장

- 온라인 전업 4개사 신규진입 및 기존사 온라인시장 참여
 - 디지털환경의 진전, 저렴한 보험료, 시장세분화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

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추이

(단위 : 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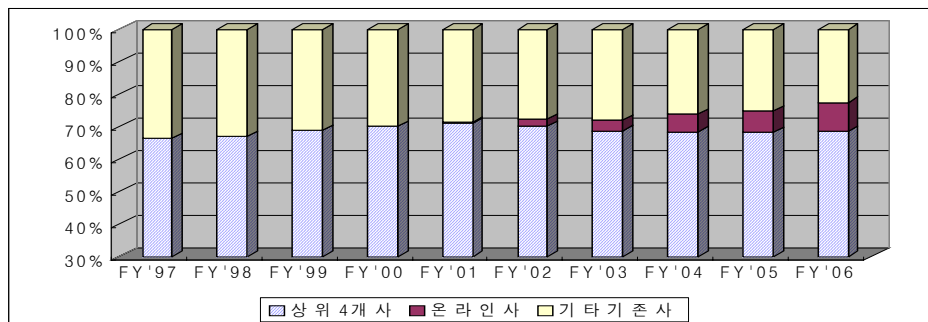
구 분	FY'01	FY'02	FY'03	FY'04	FY'05	FY'06
온라인시장	256	1,671	4,228	6,970	8,393	11,889
증가율	-	553%	153%	65%	20%	42%
전 체	70,769	73,161	73,641	78,770	81,112	88,555
점유율	0.4%	2.3%	5.7%	8.8%	10.3%	13.4%

주) 수입보험료 기준이며, 보장사업 및 취급업자보험등 기타보험실적은 제외

○ 온라인사 진입이후 시장점유율 추세의 변화가 발생

-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브랜드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이 시장 점유율 변화를 유도

자동차보험 사별 시장점유율 추이



주) 수입보험료 기준, 온라인사는 교보자보, 교원나라자보, 다음다이렉트, 현대하이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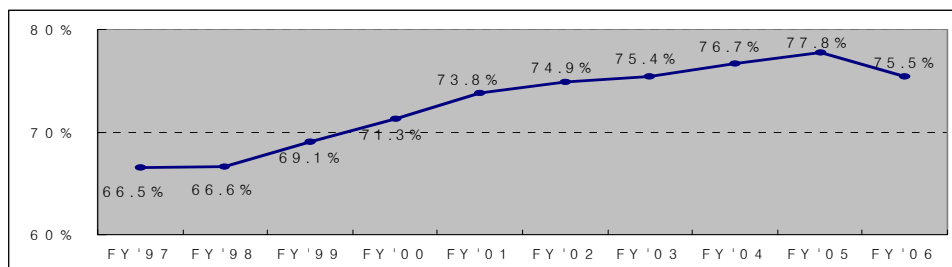
○ 시장점유율 변화는 경영전략 변화(자동차보험 인수기준강화, 장기보험으로의 주력종목 전환)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

□ 대리점, 모집인등 기존 판매채널의 대형사 집중도 심화

○ 기존 판매채널 모집실적(전체 수입보험료중 약 80%점유)중 상위 4개사 수입보험료 점유율 상승(FY'97 66.5% → FY'06 75.5%)

- 대형사의 판매조직 구축기반, 판매채널 전략, 협상력 등에 기인

기존채널 수입보험료중 상위 4개사 점유율



주) 손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중 기존채널(대리점+모집인) 모집실적 점유율

□ 홈플러스, GS25등 할인점 · 편의점 등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한 보험판매등 신판매채널의 다변화가 확대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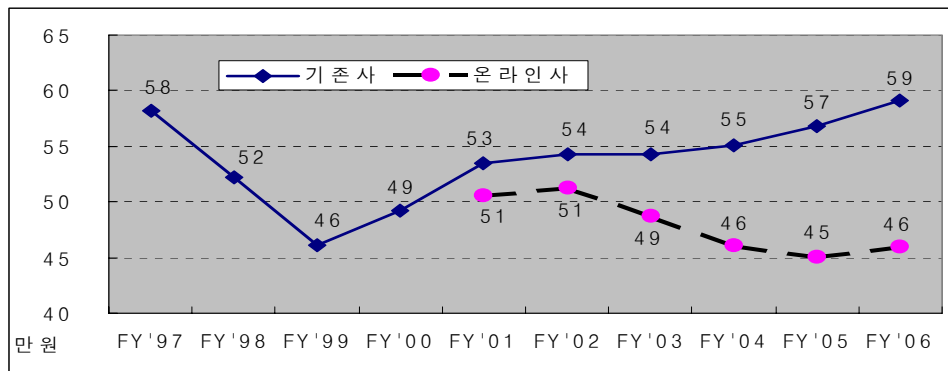
2) '05.4~'06.6월 기간 중 보험회사가 할인점과 연계하여 판매한 자동차보험 실적은 총 394억원으로 조사 (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.8.18)

다. 가격경쟁의 심화

□ 기존사와 온라인사간, 온라인사 상호간 가격경쟁 심화

- 기존사의 '06년 대당 평균보험료는 물가상승, 사고발생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유사한 수준이고, 온라인사의 평균 보험료는 하향 추세

대당 평균보험료 추이



- 주 1) 온라인사는 교보자보, 교원나라자보, 다음다이렉트, 현대하이카
 2) 경과보험료를 대인 I 평균유효대수로 나눈수치임

□ 소비자의 가격민감도 증가

- 가격경쟁, 보험료 공시 활성화 및 비교광고 허용 등으로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는 크게 증가
- 10%미만의 보험료차이에도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1/4로 조사³⁾
 - 이는 상대적으로 직판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⁴⁾

3) 10%미만 25.6%, 10%~20% 27.3%, 20%이상 26.8%(『보험소비자 설문조사』, 2005, 보험개발원)

4) 독일은 5%정도 이동의사, 일본은 보험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 가격보다는 고품질 서비스를 중시(정중영, “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판매채널 및 상품경쟁력 강화방안”, 『보험개발연구』, 2002.3, 보험개발원, pp80~81)

2. 상품운용

가. 상품의 브랜드화/다양화

- 가격자유화 이후 저가형 상품에 대응하고, 자사 충성도를 높이는 수단중 하나로 상품의 브랜드화 확산
 - '02년 삼성화재의 '애니카' 출시 이후 대형사 위주의 브랜드 상품시대 개막
 - LIG 매직카⁵⁾, 현대 하이카, 동부 프로미, 메리츠 Readycar 등
 - 상품내용 및 서비스수준의 차별화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계기
 - 초기에는 기존상품보다 고보장형 상품으로 브랜드를 운영하였으나,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통합브랜드로 전환
-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료 절감형 상품과 더불어 고품질·고가격 상품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활성화
 - 세분화형 특약상품 및 할인형 특별요율상품등 보험료절감형 상품 활성화
 - 운전자한정특약 세분화 : 부부/1인/가족+형제자매/부부+1인 등
 - 연령한정특약 세분화 : 30세/35세/38세/43세/48세 등
 - 특별요율상품 : 안전 및 도난방지장치,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할인형 상품
 - 기명피보험자의 보장을 강화한 고보장형 상품 개발
 - 주5일 근무제 확대, 레저문화 활성화, 소비자니즈에 부응한 주말 사고 추가보장, 상급병실료, 법률비용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

5) LIG손해보험은 '96년 3월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인 매직카서비스를 도입하였고, '02년에는 매직카자동차보험이라는 통합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출시

나. 물적담보 비중 증대

□ 대물담보의 가입의무화 및 차량담보에 대한 인식제고 등으로 물적담보 가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

○ 대물 FY'97 79.5%→FY'00 83.9%→FY'03 85.8%→FY'06 92.2%*

* 자동차운수공제 실적 제외 수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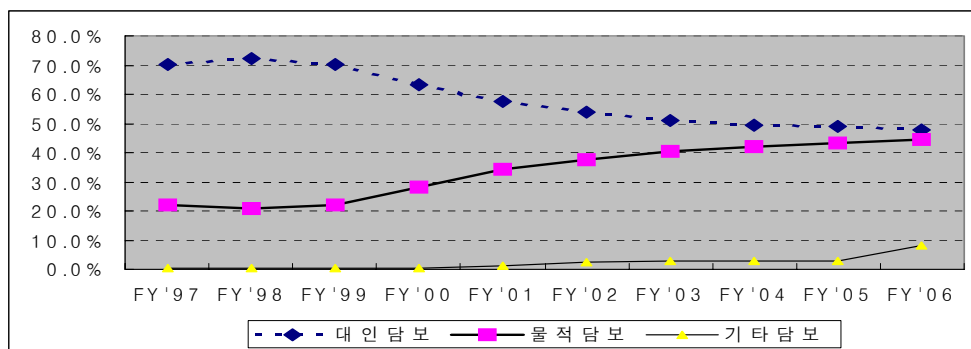
○ 차량 FY'97 39.7%→FY'00 49.1%→FY'03 51.6%→FY'06 52.5%

□ 가입율 증가와 더불어 차량의 고급화 추세, 중대형차 선호도 증가 및 정비수가 인상 등으로 물적담보 보험료 규모 증가

○ 물적담보 보험료구성비 :

FY'97 22.2% → FY'00 28.3% → FY'03 40.3% → FY'06 44.3%

물적담보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



□ 물적담보의 가입금액 고액화 추세 확산

○ 외산차 및 중대형 차량 증가등 자동차의 고급화 추세에 기인

- 외산차 등록대수 '97년 5.1만대 → '01년 7.5만대 → '06년 22.5만대

- 2000cc이상차 점유율 '00년 8.6% → '03년 16.8% → '06년 21.4%

물적담보 가입금액 추이

(단위 : %)

구분	FY'97	FY'98	FY'99	FY'00	FY'01	FY'02	FY'03	FY'04	FY'05	FY'06
대 3천만원	1.9	3.3	9.2	25.8	43.5	59.1	65.1	55.9	47.1	32.6
물 5천만원이상	0.2	0.3	0.5	2.7	10.1	10.5	15.5	30.9	43.1	60.2
차 600만원초과	28.2	27.2	26.5	29.2	35.5	41.2	45.3	43.7	43.2	43.9
량 2천만원이하	1.5	1.9	2.5	2.8	4.2	6.5	7.4	6.8	7.6	9.1

다. 의무보험영역의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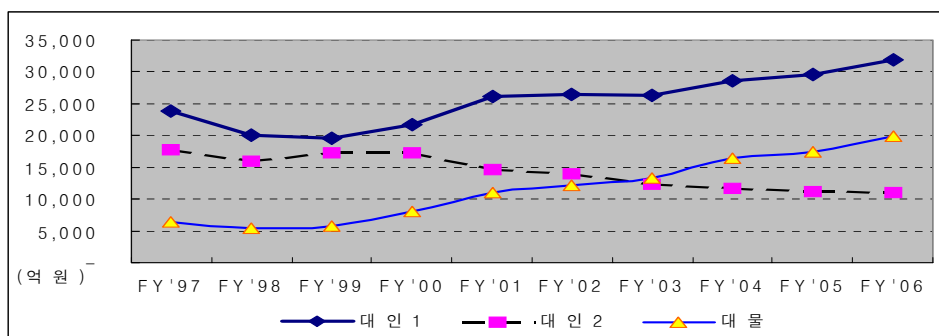
□ 대인배상 가입금액 상향조정 및 대물배상 가입의무화등 의무보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

- 진료비 및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대응한 피해자보호 강화 목적
 - 대인배상(사망기준) '97년 6천만원 → '01년 8천만원 → '05년 1억원
 - 대물배상 가입의무화 '05년 1천만원

□ 의무보험 비중확대로 관련담보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인 증가추세

- 의무보험 수입보험료 비중 : FY'02 약 35% → FY'06 약 54%
- 의무보험 영역의 확대는 시장규모 확대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
 - 자동차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시켜 상품개발 및 가격설정등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소로도 작용

주요 담보별 수입보험료 추이



3. 위험양태

가. 사고발생율 및 소액사고 증가

□ 사고발생율의 급격한 증가

- 사고건의 경찰신고의무 완화와 교통법규위반자의 빈번한 사면 등에 따른 안전의식 이완,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 등 영향

- 주요 담보의 사고발생률은 '97년에 비하여 2배이상 증가
- 지난 10년간 등록대수는 연평균 4.8% 증가한데 비하여 대인 배상 I 및 대물배상 사고발생율은 각각 7.8%, 8.4% 증가

주요담보별 사고발생율 추이

(단위 : %)

구분	FY'97	FY'98	FY'99	FY'00	FY'01	FY'02	FY'03	FY'04	FY'05	FY'06	연평균 증가율
대인 I	3.0	3.4	4.4	4.8	4.6	4.8	5.3	5.2	5.7	5.9	7.8
대물	6.1	6.4	8.7	9.7	10.0	11.0	11.8	11.1	12.1	12.6	8.4
차량	8.6	9.3	13.6	15.7	15.7	18.3	19.4	17.9	18.8	19.5	9.5

주) 자동차등록대수 연평균증가율 : 4.8%('97년 10,413,427대 → '06년 15,895,234대)

□ 대인사고중 소액사고건이 지속적으로 증가

- 자동차증가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감소, 자동차 성능개선 · 안전장치) 향상 및 경미사고에 대한 보험금청구 일반화 경향 등에 기인
- 대인사고중 200만원이하 소액사고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3.4%를 점하는 반면, 1억원 이상 고액사고건은 0.21%로 하향 추세

대인배상 소액사고 증가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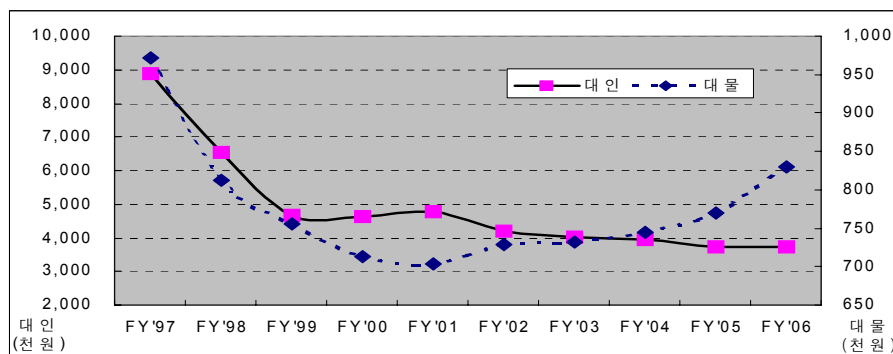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구분	FY'97	FY'98	FY'99	FY'00	FY'01	FY'02	FY'03	FY'04	FY'05	FY'06
고액사고	0.24	0.67	0.43	0.39	0.38	0.32	0.28	0.26	0.22	0.21
소액사고	65.7	68.8	73.6	75.0	80.1	82.0	82.0	82.5	82.9	83.4

주) 고액사고는 1억원이상, 소액사고는 200만원 이하 지급건 기준

- 대인사고의 경우 소액사고 증가로 사고건당 손해액도 감소추세

배상책임담보의 건당손해액 추이



6) 지능형교통시스템, 네비게이션, 장애물/사각방지장치, 첨단브레이크, 고성능에어백, 충격흡수 고장력강판등

나. 물적사고의 증가

- 등록대수 및 가입율 증가, 차량담보 사고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대물·차량담보등 물적사고건 증가 추세
- 물적사고건 증가율은 대인사고건 증가율을 크게 상회

물적사고 건수 및 증가율 추이

(단위 : 천건, %)

구분		FY'97	FY'98	FY'99	FY'00	FY'01	FY'02	FY'03	FY'04	FY'05	FY'06
물적 사고건	건수	841	901	1,422	1,855	2,042	2,555	2,905	2,816	3,231	3,506
	증가율	-1.4	7.2	57.8	30.5	10.1	25.1	13.7	-3.1	14.7	8.5
대인 I 사고 건수증가율		-0.8	14.3	37.7	15.0	3.1	12.3	14.6	-0.3	12.6	6.7

주) 증가율은 전년대비 기준

- 외산차 및 대형차의 증가, 정비요금 인상등 영향으로 대물 손해액 및 전체보험금중 물적사고담보 손해액 비중 증가
- 고가장치, 편의 및 안전장치 장착증가도 사고건당 평균수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- 대물 평균손해액 FY'00 71만원 → FY'03 73만원 → FY'06 83만원
 - 물적담보 손해액비중 FY'00 34.0% → FY'03 42.4% → FY'06 45.9%
- 최근 태풍·폭설등 거대 자연재해 발생주기가 단축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 증가 가능성도 확대

다. 여성 및 고령운전자사고 증가

- 여성운전자의 급격한 증가로 여성운전자 사고건 급증
- 운전면허소지자중 여성비율이 2000년대 초부터 급격히 증가
 - 여성 운전면허소지자 점유율 '97년 29.2% → '06년 37.7%

여성 운전면허소지자수 및 증가 추이

(단위 : 천명, %)

구분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
인원수	4,608	4,892	5,341	5,995	6,680	7,391	7,951	8,373	8,753	9,096
점유율	29.2	29.5	30.4	32.1	33.6	34.8	36.0	36.8	37.3	37.7

자료 : 경찰청

- 여성운전자 증가에 따라 여성운전자 사고건도 급격히 증가
 - 대인사고건 여성운전자 비율 '97년 12.3% → '06년 22.5%
- 인구의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건 증가
 - 65세이상 고령인구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며, 2010년에는 11%에 이를 것으로 전망(통계청)
 - '00년 7.2% → '05년 9.1% → '10년 10.9% → '20년 15.7%
 -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건은 연도마다 변화는 있으나, '06년의 경우 '97년에 비하여 약 3배 증가
 - 61세이상 대인사고건 점유율 '97년 3.1% → '00년 14.0% → '06년 9.3%

라. 레저차량등 여행운행 증가

- 주5일제 시행, 레저문화 확산 등으로 여행관련 이동량이 크게 증가하여 자동차의 운행빈도도 증가⁸⁾

근무형태별 국내여행 참가횟수 및 여행일수

(단위 : 회, 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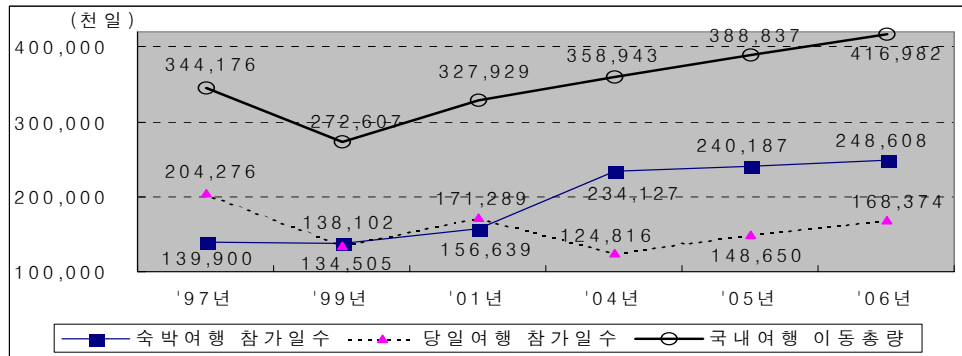
구분 근무형태	총 횟수			총 일수		
		숙박여행	당일여행		숙박여행	당일여행
주 5일 근무	9.12	3.97	5.15	12.81	7.66	5.15
주 5일 근무이외	7.28	2.82	4.46	10.19	5.73	4.46

자료 : 『2006 국민여행실태조사』, 2007.5, 한국관광공사

7)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사결과에서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여행관련 여가활동이 증가(관광여행 5.4%→23.1%, 레저스포츠 참여 7.6%→17.1%)할 것으로 예측(『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국민여가활동 및 농산어촌 활성화 실태조사 분석보고서』, 2004.7, 국가균형발전위원회)

8) 국내여행시 자가차량의 이용비율이 약 70%로 조사(『2006 국민여행실태조사』, 2007.5, 한국관광공사)

연도별 국내여행 이동총량(참가일수) 추이



자료 : 『2006 국민여행실태조사』, 2007.5, 한국관광공사

- 연도별 평균교통량⁹⁾도 승용차를 중심으로 증가추세
 - '97년 6,632대 → '01년 7,127대 → '04년 7,108대 → '06년 8,013대

□ 여행차량 및 일반차량의 운행빈도 증가로 사고발생률 증가

- 토요일의 대인사고 사고율은 10.3%(학교가 쉬는 토요일 10.4%)로 평균사고율 8.7%보다 높게 나타남(금융감독원 보도자료 '07.6.4)

마. 보험사기건 증가

□ 최근 보험사기건이 증가하면서 적발건수도 급격한 증가 추세

- 사기유형별 적발건수로는 운전자 바꿔치기(약 30%), 사고후 피해과장(약 20%), 보험사고 가공(약 15%)순

보험사기 적발건수 현황

(단위 : 건, %)

구분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
건수	1,951	2,684	3,876	4,726	5,749	5,757	9,315	16,513	23,607	34,567
증가율	-	37.6	44.4	21.9	21.6	0.1	61.8	77.3	43.0	46.4

자료 : 금융감독원

□ 보험사기 적발관련 금액은 '06년 전체 2,490억원에 이르러 일반적인 보험사고 발생양태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규모까지 육박

- 보험시장의 교란요인, 보험사의 신뢰 저하, 사회적 안전의식 이완 등 도덕적해이 유발가능성

9) 도로의 한 지점에서 365일 동안 조사한 24시간 교통량 평균값(『2006 도로교통량 통계연보』, 건설교통부)

III. 전략적 시사점

1. 저성장기조에 대응한 수익성중시 경영전략 수립

□ 과도한 시장경쟁의 부작용을 경험한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행착오 최소화

○ 영국의 경우 가격경쟁격화와 온라인사 난립 등에 따라 광고선전비 및 기타 관리비 증가로 온라인사의 최대장점인 채널측면의 가격경쟁력을 점차 상실

○ 시장경쟁 격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영국, 독일 등의 가격자유화이후 가격경쟁 사례에서도 확인

- 영국은 가격경쟁에 따른 급속한 보험료하락, 합산비율 증가('94년 95% → '97년 110%) 및 대규모 M&A 발생 등 혼란 경험

- 독일도 보험사간 M/S 유지를 위한 가격경쟁 촉발로 '95년부터 4~5년간 마이너스 성장 및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(100% 상회) 경험

□ 내실위주의 경영등 장기적인 안목의 대응전략 수립

○ 수익성 위주의 가격정책 및 인수전략 수립 필요

- 가격설정, 언더라이팅 및 손해율관리 등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주로 한 자사 위험관리체계 구축

※ 감독당국의 리스크중심 감독체계(RBC, RAAS) 도입은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능성등 변혁을 예고

※ 특히, 손해율은 사고율등 외생변수 영향이 강하므로 단기 가격경쟁적인 대응 또는 IR 위주의 전략보다는 일관된 손해율 관리정책의 시행·홍보를 통해 일시적인 손해율 개선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국민의 오해소지를 불식

- 소비자분석시스템 구축, 언더라이팅 기법개발, 리스크 세분화 등 차별화전략의 추구를 통한 전방위적 경쟁에 대응할 필요

- 최근 일부사의 경우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장점유율 유지보다 우량물건 중심의 인수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응

- 회사별 특성 및 목표시장을 고려한 판매채널 운용전략 모색
 - 채널별 효율성 분석 등을 통한 채널 특화전략 추구
 - 이업종간 판매제휴 가속화, 브랜드력을 이용한 판매전문회사 (Brand Assurer) 진입 등에 대비
- 무분별한 과당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제고
 -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, 적정 요율산출 및 업무효율화 등을 목적으로
 - 업계내 자율적인 상품개발 모범기준(Best Practice) 마련 · 시행을 통해 가격경쟁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

2. 물적담보 운영의 효율화방안 모색

- 물적사고 처리비용 감소방안 모색
 - 적정한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을 통하여 보험의 사고예방적 기능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억제
 - 자기부담금액의 개선 점검을 통해 경미한 손상차량에 대한 과잉 · 편승수리 차단, 자차무과실 사고건등 감소 유도
 - 차대차사고 보상처리에 대한 선진국 운영사례(CGIRSA Agreement 등) 분석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
 - 과실비율 분쟁억제 및 신속보상으로 처리비용 감소도모
- 수리비 지급적정화방안 지속 추진
 - 대물사고시 자동차의 성능 · 안전도 등과 관련이 적은 부품을 중심으로 중고부품의 재제조 · 재활용을 추진
 - 중고부품으로 수리시 신부품과의 차액 일부를 합의금 · 격락손해 명목으로 현금지급 하는 등 수리비절감 유도 모색
 - ※ 미국 Allstate사의 경우 재생부품 사용율이 35~40%수준

※ 일본은 특정부분의 재생부품 사용시 차량보험료를 5% 할인하는 「리사이클 부품사용 특약」을 운용

※ 최근 산업자원부는 중고부품의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시범도입 운영

○ 수리비 전적시스템 사용확대 및 표준정비공장 운영

- 정비공장의 수리비전적시스템(AOS) 사용유도를 통한 정비공장별 수리비통계 관리 및 보험사기 방지노력 강화
- 합리적인 정비요금운영을 위해 표준정비공장을 통한 적정공임율 적용 유도과 전문기관에 의한 작업시간 관리체계 강화

3. 소비자성향 변화에 대응한 상품개발

□ 인구구조 변화, 안전과 웰빙니즈 증가등 보험수요 변화에 대응

- 고연령한정 특약상품 및 여성 특화상품, 주말보장 강화상품등
- 소비자특성(연령·운전자범위·운전경력·소득수준·차량가액등)을 조합한 매트릭스형(Tier Group) 맞춤상품
- 고객수요를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조립형 모듈형상품, 유사위험을 종합한 패키지형 상품등

□ 가격·상품 민감도 증가 및 실리위주의 소비트랜드 확산에 대응

-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고가의 보장중시형 상품과 저가의 가격선호형 상품으로 분리 운영
- 차량의 안전특성, 차량보관 상태별 보험료 할인특약 상품
- 차종, 직업, 연령 등 특화·세분화 상품

4. 사고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□ 교통법규위반 사면방식 개선 건의 및 주요 사고의 경찰신고 의무화 추진

- 교통법규위반자 사면¹⁰⁾방식에 대한 외국 관련제도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 시행방안 건의

※ 프랑스의 경우 음주운전, 과속, 정지신호무시, 위험한 추월 등은 일반적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

- 주요 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 추진

- 중대법규위반사고 및 인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신고의무화를 추진하여 가·피해자간 분쟁예방 및 Moral Risk 감소유도 필요

※ 최근 교통사고 통계관리를 위한 보험사의 사고건 경찰신고의무화 움직임 (홍미영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등)에도 대응 가능

※ 일본의 경우 사고건의 경찰신고가 의무화되어 있고, 보험처리시 경찰서의 "교통사고증명서"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거의 모든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고 있음

□ 운전면허·교육제도 강화지원을 통한 사고발생 감소유도

- 정부차원의 고연령자 적성검사 강화 및 고연령자·여성운전자·20세미만자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 마련 건의

-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부여검토

※ 미국은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제도를 운영중이며, 일본도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강화 움직임

※ 미국의 경우 일정요건을 만족시키는 운전교육을 이수(학과 및 운전실기교육 등)한 20세이하 남성 및 미혼여성에 대한 보험료할인제 운영

□ 보험사기 방지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노력 지속 추진

-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·감독당국·수사기관간 상시 공조체계 구축 및 보험사 조사능력 강화(심사 및 조사인력 확충)

- 보험사기 관련법 제정 및 제도정비를 통한 보험사기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권 부여

- 보험계약·사고정보 교환시스템 정비 및 확충 등

10)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에 따라 사고율이 약 8~10%증가('02.7 사면후 9.7%, '05.8 사면후 7.1%)

- 건강보험 통계와의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진료비 심사의 강화
 - 이중청구 및 기왕증 추적, 부당·허위청구 예방 등
 -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진료비심사·지불체계 일원화 검토

5. 요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검토 추진

- 차량담보요율의 현실화
 - 연식별 손해율(위험도) 차이에 부합되도록 개선 검토, 차량모델별 요율적용폭 현실화 추진
- 이륜자동차보험 요율세분화 및 할인할증제 실시 추진
- 운전가능 범위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도모
- 1대 소유자와 다수차량 보유자간 손해율 불균형 개선 검토

CEO Report 2007-6

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시사점

발 행 일	2007년 11월 일
발 행 인	정 채 웅
편 집 인	이 득 주
발 행 처	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 대표전화 368-4000
인 쇄 소	(株) 有成社 대표전화 2285-0070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 통계팀(☎368-4276)으로 하여 주십시오.